

전도서 Ecclesiastes

Week 3: 손들 Hands

브랜드 목사

- 손
- **Cho fen**= 손을 오므리거나 컵을 만드는 것
- **Yad** = 접힌 손.
- **Kaph** = 열린 손
- “나는 세상에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전도서 4:1-9

1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2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3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4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5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6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7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8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9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cclesiastes 4:1-9

Again I looked and saw all the oppression that was taking place under the sun: I saw the tears of the oppressed—and they have no comforter; power was on the side of their oppressors—and they have no comforter.

2 And I declared that the dead, who had already died, are happier than the living, who are still alive.

3 But better than both is the one who has never been born, who has not seen the evil that is done under the sun.

4 And I saw that all toil and all achievement spring from one person's envy of another. This too i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5 Fools fold their hands and ruin themselves.

6 Better one handful with tranquillity than two handfuls with toil and chasing after the wind.

7 Again I saw something meaningless under the sun:

8 There was a man all alone; he had neither son nor brother. There was no end to his toil, yet his eyes were not content with his wealth. "For whom am I toiling," he asked, "and why am I depriving myself of enjoyment?" This too is meaningless— a miserable business! "

전도서4:5-6

5"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6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Ecclesiastes 4:5-6

5 Fools fold their hands and ruin themselves. 6 Better one handful with tranquillity than two handfuls with toil and chasing after the wind.

잠언23”33-34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Proverbs 24:33-34

A little sleep, a little slumber, a little folding of the hands to rest—34 and poverty will come on you like a thief and scarcity like an armed man.

요한복음14:27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John 14:27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마태복음3:16-17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Matthew 3:16–17

16 As soon as Jesus was baptized, he went up out of the water. At that moment heaven was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alighting on him.

17 And a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